

<서평>

성서주석적 설교에 대한 조직신학적 성찰

『설교란 무엇인가』

정용섭

서울: 홍성사, 2011, 275쪽

이영미*

1. 들어가는 말

설교란 참으로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다. 설교는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행해지는 사건’¹⁾이기에 놀랍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계시 선포라는 명목 아래 편협한 사건만 늘어놓는 형세가 될까 늘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 설교를 공개적으로 세 권의 책을 통해 과감하게 비평해 온 설교 비평가²⁾인 정용섭 목사(이하 저자)가 이번에는 『설교란 무엇인가』란 표제의 책을 내놓았다. 설교학자가 아니라 설교 비평가가 말하는 설교가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에 책을

* 한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투르니아젠의 말. 루돌프 보렌, 『설교학 실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39에서 재인용된 것을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서울: 홍성사, 2011), 42에서 다시 인용함.
- 2) 정용섭, 『속 빈 설교 깎 찬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정용섭,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정용섭, 『설교의 절망과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열었다.

본서는 ‘설교가 무엇인가’란 정의로 시작하여, 한국 교회 설교의 진단을 거쳐 설교의 과제 및 방향 제시, 그리고 저자의 설교 준비에 대한 소개로 끝난다. 총 16장으로 구성된 목차는 그 책의 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와주므로 여기에 인용한다: 제1강, 설교, 가능한가?; 제2강, 한국 교회 강단, 무엇이 문제인가?; 제3강, 나열식 설교를 넘어서!; 제4강, 성서 텍스트의 침묵; 제5강 설교와 조직신학-전통 설교와 위로 설교를 넘어서; 제6강, 성서에는 세계가 있다; 제7강, 해석 없이 설교 없다!; 제8강, 성서 해석과 인문학; 제9강, 인문학적 성서읽기; 제10장, 자의적 성서 해석을 넘어; 제11강, 설교와 성령; 제12강, 설교의 영성; 제13강, 구원론적 설교; 제14강, 설교의 즐거움; 제15강, 당신 설교는 어떤데?; 제16강, 나의 설교 준비. 목차만 봐도 저자의 의도와 방향을 잘 알 수 있는 일목요연한 책이다.

서평을 책의 목차를 따라가며 요약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네 가지 범주-설교의 이해,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 진단, 설교의 과제와 실제, 설교의 방향-로 나누어 간단히 소개하면서 곁가지로 그에 대한 서평자의 견해를 적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독자들도 설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2. 설교가 뭐꼬?

“설교가 뭐꼬?” 저자의 설교관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전하는 행위’,³⁾ 즉, 텍스트(성서)와 컨텍스트(청중)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안의 계시를 말하며, 설교자는 그 성서의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

3)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서울: 흥성사, 2011), 11.

하나님 계시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추구하고 이를 선포해야 한다. 설교에 대한 많은 책들이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설교 전달에 치중한다면 이 책은 설교자와 성서 계시의 관계에 설교의 중심을 놓는다. 설교는 우리의 능력,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의존성을 통한 계시의 존재론적 능력이다.⁴⁾ 설교자는 자신을 겸허하게 비우고 비움의 영성으로 성령을 통한 생명 살림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저자가 자신의 설교관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보니 설교의 다른 이해를 수용할 틈이 별로 안 보이는 답답함이 있다. 한 가지 예로 저자는 윤리적 설교를 혹평한다. 물론 도덕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교의 케리그마와 함께 디다케적 요소-깨우치고(awaken), 가르치고(teaching), 교훈하는(instructing)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설교는 케리그마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디다케적인 메시지로 그들을 자라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설교의 윤리적 측면은 고려되어야 한다.⁵⁾ 이는 설교를 설교자와 성서 계시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다보니 컨텍스트(청중)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좀 미흡하게 설명된 탓으로 보인다. 저자가 설교를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자와 텍스트의 관계만큼이나 설교자와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평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3.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 진단

저자가 진단하는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는 실용적 요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⁶⁾ 하나님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4)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48.

5) 주성호, 『21세기를 위한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9-31.

6) 한국 교회 예배 역시 ‘열린 예배’로 대표되는 종교적 여흥에 초점을 둔 예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기복주의, 지나친 정치적 색깔 보이기, 역사 허무주의, 성숙 이원론, 가부장주의, 성서 문자주의, 반지성주의 등의 많은 문제 중 세 가지, 예화 과잉, 감상주의, 도덕주의를 한국 설교의 주요 문제로 지적한다.

우선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예화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가끔 예화를 위해 본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한다. 또 이들 예화가 상투적이고, 진부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리고 특별한 사건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를 보여준다. 예화가 부분적으로 설교의 역동성을 부여하기도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설교 행위에 상처를 낸다고 우려를 표한다. 보편적 진리를 가로막는 예화의 과잉은 설교를 보편적 진리에서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 교회 설교는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상주의 성격을 띠며, 그 밑바탕에는 포퓰리즘이 있다고 말한다. 감상주의 설교가 만연하면 신자들은 신앙의 깊이에 천착하기보다는 막연한 느낌에 의존하게 된다. 인간은 감정에 쉽게 휩싸이기 때문에 감상주의가 매우 뜨거워 보이지만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훼손시킨다. 감정 표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에서는 무기력해지는데, 이런 경향은 사이비나 이단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다.⁷⁾

또한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 통치의 존재론적 능력보다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이라 할 도덕과 윤리에 두는 도덕주의가 만연하다. 이러한 도덕주의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첫째, 도덕적 가치는 설교가 근거할 복음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설교가 지향할 하나님 나라의 근본 가치도 아니다. 둘째, 시대와 상황에

실용화를 비판하고, 설교조차도 기술적인 처방으로 청중을 설교 행위로 끌어들이고 설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설교학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35.

7)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49-50.

따라 바뀌는 도덕적 가치를 케리그마의 중심에 놓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다. 도덕주의 설교는 신자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다른 한편 율법적 신앙을 강화하여 부패한 세상과는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한다.⁸⁾

계속해서 저자는 예화, 감상, 도덕주의는 설교 영성의 편식인데 이러한 편식의 결과가 성서 도구주의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성서 도구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존재론적으로 담고 있는 성서가 신앙생활에서 도구로 이용되고, 더 나아가 소비된다는 뜻이다.⁹⁾ 설교자는 성서를 정보를 알려거나 열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속의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시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포착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구약 예언자들의 신탁 사건이다(렘 1:9 참조). 저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늘 설교자들의 정신적 뿌리라 할 수 있는데, 참된 예언자들은 대중에게 외면 받더라도 신탁에 집중”했으며 청중의 요구와 기호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였다고 강조한다.¹⁰⁾

서평자 역시 신세대의 자유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구세대의 한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에 대한 저자의 비판에 수긍되었다. ‘설교에 대한 신학적 사고와 기반 없이 단순히 실용적 기대만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경우 조만간 설교는 회중을 모으는 데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라는 설교학자의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¹¹⁾

8)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50-51.

9)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53.

10)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41, 56.

11)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7.

4. 설교의 과제와 실제

한국 교회 강단 설교의 진단을 통해 저자는 설교의 본질적인 과제가 감상주의와 도덕주의를 넘어서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시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설교자가 실제로 전해야 할 내용은 성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성, 즉 하나님의 계시이다. 설교자는 성서를 종말론적 개방성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종말의 빛에서 어떻게 오늘의 삶을 비추는지 해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성서를 정확하게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하고, 2000년 간 계속된 신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나름으로 고도의 글쓰기 훈련을 병행”¹²⁾하여 탄탄한 구성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교자는 성서 주석을 위한 기초 지식과 역사 비평적 주석 능력, 그리고 조직신학, 인문학적 안목을 갖추어 설교의 주제를 가볍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논조를 깊은 쪽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역사 비평은 성서 텍스트의 역사적 실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조직신학은 성서와 설교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문학, 역사, 철학을 지칭하는 인문학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깊게 해준다. 설교의 중심은 케리그마를 중심으로 하는 도그마인데, 성서와 기독교 교리가 담고 있는 현실성을 풍부하게, 인문학적 지평에서 풀어내는 것이 설교의 과제이다.

이어서 저자는 나열식 설교, 전통 설교, 그리고 위로의 설교가 이러한 설교의 과제를 편협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열식 설교는 인간 구원이라는 우주론적 주제를 다루어야 할 설교가 삶의 요령을 가르치는 교양 강좌로 떨어뜨리고 있다.¹³⁾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치우

12) 정용섭, 『설교의 절망과 희망』, 208.

13)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61-64.

친 전통 설교는 지나치게 교리적이고 이상적이며, 텍스트가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설교이다. ‘삼박자 축복’, ‘긍정의 힘’ 류의 위로의 설교는 성서와 기독교 영성이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해 실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¹⁴⁾ 시인이 시어를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내게 왔다.’¹⁵⁾고 고백하는 것처럼 설교자 역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5. 설교의 방향

저자에게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되는 데 있다. 그는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는 생명을 지향하는 설교이고, 생명 지향적 설교는 곧 영적인 설교다.”고 역설하면서,¹⁶⁾ 설교의 영적 골다공증과 형성의 주술화를 넘어서 기독교가 삼위일체론적 영성, 곧 생명의 영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¹⁷⁾ 그는 영에 대한 성서적 진술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고 진술하면서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그 경험과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신비로운 영이며 성령이 일으키는 생명도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사건이다. 설교는 바로 이러한 성령에 의존하는 생명 지향적 설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개인의 심리 작용이나 주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론적 차원 안으로 이끄는 성령론적 설교는 신앙을 심화시켜 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다.

14)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86-87.

15) 오인태, <시가 내게 왔다>;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224에서 재인용.

16)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213.

17)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185-203

18)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2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유지하시고,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이해는 저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일원론적 영성을 넘어서 삼위일체론적 영성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내재적(immanent) 삼위일체일 뿐 아니라 경륜적(okumenisch)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땅과 역사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통치하신다.¹⁹⁾ 설교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담아내는 생명 지향적 설교가 되어야 한다.

6.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설교란 무엇인가』는 설교학 일반에 관한 안내보다는 주석적 설교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책으로 “주석적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익한 답변서이다. 성서학을 전공하는 서평자로서 설교가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이를 교회 전통과 인문학적 소양으로 다듬어 선포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결론은 못내 흐뭇한 것이 사실이다. 서평자도 설교의 유형 중 주석적 설교를 다른 무엇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가 한국 교회 설교가 그리스도 일원론적 영성에서 삼위일체론적 영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대목과 설교의 영성이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 큰 공감을 가졌다. 다양한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고 기독교 중심의 독선을 넘어 이웃종교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평자는 설교에 대해 저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몇 가지 논점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저자의 설교 이해에서 과거의 전통과 종말론적 미래의 제시는 강조되어 있지만 현재적 결단과 삶에

19)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215.

대한 강조는 빠져 있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론적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비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저자는 설교가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지만 설교가 감동과 자기 위안의 현학적 수사로 그쳐서도 안 된다. 설교란 특정 목사의 현학적인 신학 연설도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 발표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계시가 무엇을 위한 계시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케리그마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평자의 소신이다. 예수의 첫 설교 역시 “회개하라”는 실천적 요구였다. 정장복의 말처럼, “성서적 설교는 지금 (now)이라는 현재성에 초점을 두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여기서 (here)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실감하게 되어야 한다.”²⁰⁾ 설교 주제의 핵심이 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접목되어 재해석되고 그 공동체를 향한 선교적, 신학적 현재적 계시로 구체화되어야 계시의 현재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설교 이해는 설교로 인한 변화와 이의 실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설교는 설교가 선포되는 장(場)인 공동체(교회)의 목회 비전과 혹은 신학과 어떤 지점에서 합치되어 설교의 케리그마로, 그리고 목회 실천으로 승화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가 설교자가 갖춰야 할 자질 중에서 성서적 설교를 위해 성서의 세계를 들춰낼 성서 신학적 안목과 지식, 인문학적 소양, 조직신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데 빠진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중의 현실을 분석하고 진단할 요소로서 사회(과)학적 소양과 인성에 대한 언급이다. 설교는 지금, 여기에 있는 회중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이다. 성서와 신학적/교리적 유산들, 교회사회적 전통이 설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회중이 기독교 역사 속의 많은 다른 선배 회중들과의 공통된 신앙고백의 요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경전과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회중이 과거

20)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253.

신앙 공동체의 고백과 그들에게 내린 계시가 절대적이거나 닫힌 계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래서 안 된다. 설교가는 지금, 여기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가 벗어나거나 개인의 좁은 소견으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 성서와 신학적 유산과 교회 전통의 힘에 의존하는 것일 뿐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고 그에 따른 신앙 공동체의 결단과 깨달음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선포해야 한다.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의 말은 맞지만 그것이 성서의 세계를 아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성서 세계의 신앙인들이 그 당시 자신들의 삶과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했는가를 보면서 해석학적 유비로 지금의 삶에 이를 적용하는 범례를 찾는 작업 과정이다. 성서가 현재의 삶을 조명하고 그 속의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차리고 해석하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석학적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현실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가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싶다. 한국 교회의 강단 설교에서 남자 목사들이 성희롱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으며 그 수위가 도를 넘어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례도 종종 보도되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이나 조롱 역시 설교자로서의 인품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정인교 역시 설교가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설교가 단순히 신학적, 문학적 완성도만을 요구하는 수사학을 넘어선 어려운 작업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에 의해 이미 설교단 아래에서 그 성패가 결정 나기 마련이어서 설교자의 지속적인 경건과 삶의 실천, 그리고 모범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게다가 설교가 인간적 차원 이전에 신적인 차원을 전제하므로 인간적 노력을 모두 경주한 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영적 갈등과 겸손이 요구된다.”²¹⁾

21) 정인교, 『설교학 총론』, 5-6.

설교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교의학 등 신학 일반에 대한 지식과 해석학과 심리학, 사회학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찰로 설교가 선포되는 현장에 대한 감각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 바르트는 설교를 ‘신학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²²⁾ 그러기에 설교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 접수일 2012년 8월 7일, 수정일 2012년 8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2년 9월 10일

22) 정인교, 『설교학 총론』, 6 재인용.